

“CEO를 준비하자”

김혜경 (삼성종합기술원 Fuel Cell Project Team)



약 한달 전쯤 여성과학자 칼럼 의뢰를 받았을 때 ‘여성’과학자란 말을 의식하지 않고 써도 된다는 얘기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쓰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비교적 쉽게 칼럼을 쓰겠다고 했다. 며칠 후 의뢰하신 분이 메일을 보내셔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게재되었던 칼럼을 읽어보라며 웹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셨다. 칼럼을 몇 편 읽고 난 후,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여성’과학자에 대한 글을 써야 하나보다! 이젠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보다 훨씬 힘든 숙제를 하나 떠 안은 꼴이었다.

많은 기업에서 인재에 관한 얘기를 한다. 시스템이 발달이 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이 되어도 기업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사람인가 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 인재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은 기업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 계속되어 온 질문이다. 원하는 인재와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가 본인이 속한 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global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일맥상통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꾸준한 내공의 연마 없이는 불가능하리라. 단순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창의성, 논리성에 관한 내공의 연마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좌절하지 않으며 끈질기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성도 필요하다. 더불어 스스로 모험을 즐기고 어려운 문제를 즐기려고 하는 모험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일 것이다. 그럼 이런 요소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 무한성은 끊임없는 학습과 내공의 연마가 전제된 무한함일 것이다. 즉, 기업에서의 경쟁력과 global 경쟁력을 키우고 높이기 위한 그런 학습과 내공의 연마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름길은 무엇일까?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열거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한 왕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서 살아 온 선배들의 경험과 또한 그 경험과 부합하여 본인이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IT의 혁명은 거리라는 단절 요소를 없애고, 또한 시간이라는 단절 요소의 제거도 가능하게 하였다. 앞선 사람들의 경험은 무한한 정보 속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구체화 시키느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일이 아닐까 한다. 3000개의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가 되는 것은 하나라는 통계가 있다. 내가 연구하는 일이 사업화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3000개의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된다. 3000개의 아이디어를 30년 동안 낸다면 3일에 하나를, 10년에 낸다면 하루에 하나 꼴로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벤젠의 구조를 생각해 낸 과학자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꺾인 것이 아니리라. 물론 운이라고 주장할 사람들도 많으리라 하지만 나는 끈기와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한다. 앓으나 서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테고, 땀 꿈을 벤젠의 구조와 연결시키는 내공의 단계를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에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 그 응용 부분에 따른 창의성의 적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리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과학 기술자들의 할 일이고, 감성적인 가치 창출에 의한 혁신이 여성 과학 기술자들에게 이 시대가 바라는 역할이 아닐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단순한 보조원이나 여성 인력 몇 % 라는 통계치를 위한 인재가 아닌 진정한 여성 과학 기술자의 자리 매김이 필요하리라. 사실 이 글을 부탁받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과연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여성 인재의 모습, 그리고 여성 과학 기술자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사회적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에 관한 공감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구체적인 양성론과 방법론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많은 부분이 여성들의 장점인 감성과 모성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너무 어려워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기존의 틀을 벗고 그 또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 과학 기술자의 자리 매김은 명백한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리고 그 자리 매김은 남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유혹과 좌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산을 넘어야 할 때마다 나의 편은 어디에도 없을 지 모른다. 심지어는 여성들마저도 나의 편은 되어 주지 않을 것이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런 산은 점점 높아지고 또한 험해질 것이다. 그런 자리 매김을 위한 일이 본인 이 속한 곳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고 높이는 일이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또한 Game을 즐기는 것이다. Game을 즐기고 이기는 것부터 배우면서 자란다는 남성의 문화 속에서 여성은 그런 문화를 회피해서는 안되리라. 여성 과학 기술자들 또한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훈련을 하자. 확실한 자기 몫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몫을 요구하고 또한 기다릴 줄 아는 문화를 즐기자. 사실 나도 확실한 방법내지는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 좋은 model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훌륭한 선배들이 많으리라. 찾아내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model을 많이 찾자. 그래서 CEO를 꿈꾸고, 준비하고, 또 되자.

성공을 당연히 얘기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에 당당함을 가지는 것, 중심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고 CEO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들이 가져야 할 점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CEO의 꿈을 꾀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꿈을 당당히 얘기하고 노력하자. 강점을 강하게 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는 남성들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여성의 강점이 아닌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지위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여성 과학 기술자들이 가져야 할 요소들이 아닐까.